1. 흐름

(목적) 코로나19 전후 우리나라 입국 관광객수의 변화를 바탕으로 관광지의 매출추이를 분석해보았으며 감소된 출국 관광객이 국내 관광지의 매출에 주는 영향력 여부에 대해서 함께 분석해보았다.

-> 20년 2~3월을 기점으로 입국 관광객 수가 급감. 이에 따라 매출액도 급감하였음.

>> 흥미로운 점은 입국자수가 급감함과 동시에 이들의 평균 체제일이 급격하게 늘었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2주 의무 자가격리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설명이 완전히 되지는 않는다.

일본을 예로 들자면 19년 평균 3.7일에서 20년 2월 이후 평균 00일로 늘어났다.

2월부터 7월까지 최대 80일까지 크게 늘었다가 이후 40일정도로 유지가 되었으며, 이 기간은 한국에서의 코로나 확진자가 낮게 유지되던 기간과 겹친다.

-> [관광객 증감 \* 체제일 증감 => 매출액 증감과 비교]를 통해 비교해보았을 떄, 관광객이 크게 줄었지만 그들의 체제일이 크게 늘어난 탓에 매출액의 손실을 어느정도 줄일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결론) 관광객은 많이 줄었지만, 그들의 체류기간 증가로 인해 관광 매출액의 손실이 어느정도 보정되었다고 보여진다.

1. 데이터

* 2019~2020년 국가별 월별 평균 체제일
* 2019~2020년 국가별 입국자 수
* 국내 일별 코로나 확진자 수(2/20~11/30)
* 2019~2020년 월별 입국자 수
* 2019~2020년 관광지 매출액, 전년대비 증감률(%)

데이터 참고 사이트:

http://know.tour.go.kr/

<https://kto.visitkorea.or.kr/kor/ktom/stat/stat.kto>